

미래의 여성, 가정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가정과 교육의 역할

유 태 명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들어가는 말

여성과 가정은 가정과 교육의 핵심인 가정생활의 주체이며,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정과 교육에서 여성과 가정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Giddens(1993)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 건강과 질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세 개의 사례를 들어 인간의 본성이나 감정이라고 여겨왔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사회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를 접근하였다. Giddens의 논리는 가정과 교육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를 답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Brown(1980)이 사회과 교육과 가정과 교육의 차이를 사회과 교육은 socio-civic 관점에서, 가정과 교육은 socio-personal 관점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를 접근한다고 한 바와 같이 둘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자명하게 오늘의 주제인 「미래의 여성, 가정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논하는 데에는 “socio”의 관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여성, 가정, 사회적 지원체계를 보는 가정과 교육의 사회적 관점

가정학이나 가정교육학에서도 가정생활의 사회적 관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면모는 동일하지 않다. 우선 인간 생태학적 패러다임에서는 유기체와 다른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환경과 환경과의 상호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천 비판적 가정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인간 내에 존재하는 잘못된 믿음의 실체나 외부 체계로부터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장이 좀더 사회적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후자의 입장을 기초로 미래의 여성, 가정,

사회체계를 가정과 교육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이, 가정생활의 국면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진 데에 있다. 즉, 가정과 사회의 상호적인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예전처럼 우리 가정의, 혹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않으며 사회적 조건이 조성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개인, 가족,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가정과 교육의 전제(presupposition)로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은 사회가 전제되어야 의미 있으며 사회의 안녕이 항상 개인의 안녕에 우선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개인은 사회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개인이 발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혹자는 개인 각자가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므로 각자의 행동이 바르면 사회가 잘 될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우선하며, 개인은 사회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자아 결정력을 바탕으로 다른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다. 첫째 관점의 문제점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비판력이 무시된 점과 비대해진 체제에 적응하다보면 개인과 가족의 의미 있는 재생산이 방해받는다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정과 교육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무기력해지며, 의욕이 없어진다. 둘째 관점의 문제점은 개인의 결정이 도덕성이나 정당성, 규범성과 같은 공동의 선을 무시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재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정과 교육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정통성이나 전통의 붕괴, 몰 가치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개인, 가족, 사회가 상호 호혜적이며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여성, 가정을 위하여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실천 비판적 가정교육 패러다임이 기초를 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는 비판 사회이론이다. 사회이론은 어떻게 사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그 구성 요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현대 사회의 특징이나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제시하여 준다. 그러므로 사회의 제 현상을 이해하게 해주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비판사회이론과 같은 거시이론을 가정교육학에서 적용시킬 때는 이론에 대한 가정교육학적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비판 사회이론에서 제시한 사회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생활세계”의 개념은 가정과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생활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생활”이란 단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1) 비판이론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 (2) 생활세계의 개념을 그대로 생활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가정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 (3) 생활세계의 개념이 제시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생활세계의 국면이 급변한 문제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 가정, 사회적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혹은 어떤 부분은 통합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1) 비판 사회이론에서는 사회구조를 1) 생활세계와 2) 경제, 정치 행정을 포함하는 “체계”¹⁾로 보았다. 가장 흔한 오류가 1) 생활세계의 공적영역과 “체계”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이나 가정을 간과하였다고 보는 점, 3) “체계”의 권력이나 압력은 인식했으나 가족 내의 권력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점등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는 여성과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데 문제의 근원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여성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체계”와 관련된 원인, 집단적인 이데올로기 등 문제의 배경이 역사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 이론은 매우 유용하다. 비판이론이 여성과 가정을 간과하였고, 가족 내의 권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이론의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비판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데올로기 비판이며, 개인을 억누르는 가장 기초적인 실체를 무지와 편견, 습관적인 사고, 나아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성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은 성차별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도 가족 내 권력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거시이론의 우리 분야로의 적용 상의 문제점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론의 골자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최소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인식하고 학생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생활세계는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상징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족과 같은 사적영역과 공공성과 같은 공적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세계에 대한 오해로 대표되는 것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 이론의 내용들을 검토하면 둘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직장생활의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활세계의 사적영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생활세계의 공적영역에서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가정과 교육에서 생활세계의 개념을 그대로 생활의 개념에 적용시킨다면 생산자, 소비자, 시민의 역할을 모두 동등한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이며, 이는 교과과정의 정체성 혼미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가정과 교육에서는 직장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직장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가족관계, 가정경제와 관리, 역할 갈등, 일에 대한 가치관 개발 등 socio-

1) 여기서의 체계는 사회구조의 하위체계가 생활세계라면 상위체계인 경제, 정치, 행정 체계를 의미한다. 본문 중에 사회적 지원체계가 의사소통 체계가 언급되는 이유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 ”를 이용하여 구별하고자 하였다.

personal concern을 갖는다. 사회가 교육의 경우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직장인의 성별 구조, 산업분포와 변화 추이,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시민의 역할과 같은 socio-civic concern을 갖는다. 그러므로 교과와 내용과 방법이 교과마다 완전히 독자적일 수 없으며, 교과와 생존을 위하여 다른 모든 교과가 다루지 않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역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가정과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그보다는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확실히 하고, 여성, 가정이 처한 내적 외적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그에 요구되는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 (3) 미래의 생활세계는 비판이론이 처음 제시된 당시와 비교하여 점점 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며,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세계와 체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체계”가 생활세계를 침범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이라면 미래 사회는 탈식민화, 더 나아가 생활세계가 “체계”를 주관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활세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는 더욱 확장될 것이며, 사회적 지원체제와 가정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져서 생활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비판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원체제를 보는 관점은 체계가 생활세계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기보다는 생활세계의 주체가 질적인 삶의 영위를 위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이나 방식으로, 생활세계와 융합된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치매시설의 예를 들어 보면, 가족이 사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 운영체제도 하나의 사회적 기관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지원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체계”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지원체제가 되어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가정학의 차원에서는 가족이 치매노인을 위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물리적인 치료 및 요양 조건을 소비하는 개념의 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학에서는 치료적인 성향을, 가정학에서는 예방적이며 삶의 질 지향적인 성향을 띠는 차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적 지원체제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가정과 교육의 역할

오늘 의식주, 가족, 관리와 소비영역에서는 각 전문분야와 관련한 사회적 지원체제, 특히 미래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원체제와 각 전문분야의 역할이 제시되고 논의된다. 가정과 교육영역에서도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사회적 지원체제에 중점을 둘 수도 있었으나, 다른 가정학의 분야와 달리 가정과 교육 전공자는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실생활에서의 실천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 가정, 사회의 조건과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좀 더 원론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원론은 실제 가정과 교육을 하는데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전공자간의 생각의 갭을 줄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가정과 교육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관점을 가짐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가정생활에 의미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므로 나만의 행동이 옳으면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이다. 진정 개인과 가족의 행동과 사고로 정당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사고력, 사회적 현상의 이해, 여성과 가족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인식과 비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 능력을 길러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짧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예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거나,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가정과 교육을 실현한다면 사회적 관점을 갖는 가정과 교육에 한발 가까워질 것이다.

- 개인, 가족, 사회와의 관계를 보는 통찰력을 기르도록 한다.
- 여성, 가정, 기타 사회적 조건에 존재하는 왜곡된 믿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비판력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 생활세계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관계, 생활세계와 “체계”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주체가 된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가정학의 여러 전문 영역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제 생활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 미래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맺음말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의 사적영역에 국한하여서는 미래의 여성과 가정에 공헌할 바가 미약하다. 그러므로 생활세계의 개념에 제시된 공적영역에 관심을 갖되 타 교과와 구별되는 교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을 취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경제, 정치 행정 “체계”가 제공하는 최저 수준의 지원체제의 개념에서 생활세계가 주축이 되어 구축하고 유지하는 삶의 일부나 연장의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 전공자들은 개인, 가족, 사회를 보는 관점을 개발하고, 생활세계와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여성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은 어떤 본질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고, 가정과 교육이라는 채널을 통해 실제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종훈(1994). 현대의 위기와 생활세계. 도서출판 동녘.
- 장춘익 외(1996). 하버마스의 사상. 나남출판.
- 조정옥 외(1993). 사회철학대계 3집. 민음사.
- Brown, M.M.(1993). *Philosophical studies in home economics*. Michigan State University.
- Giddens, A.(1993). *Sociology*. London: Polity Press. 김미숙 외 역(1998).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 White, S.K.(1989). *The recent work of Jurgen Habermas: Reason, justice & moder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